축사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한계를 뛰어 넘고 싶었다

신윤환 | 제7대 소장

올해로 동아연구소가 설립 25주년을, 그리고 『동아연구』가 지령 50호를 맞게 된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요, 크게 축하할 일이다.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이 취약한 국내 대학 연구소와 정기간행 학술지들 중에서 이들 만큼 실적을 쌓아 올린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이다.

나는 2001년 8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만 4년 1개월 동안 제7대 동아연구소 소장 직을 맡아 일했다. 나보다 앞섰던 여섯 분의 선배 소장님들께서 갈고 닦아 놓으신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그 분들께서 이루신 업적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지만, 내가 소장을 맡았던 4년여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실적을 동아연구소의 치적에 보탰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4년 동안 35억 원(간접비 3억 4천만 원 포함)에 육박하는 대규모 연구비를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부터 받은 일이요, 다른 하나는 『동아연구』를 학진 등재후보지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한 일이다.

우선 학진 공동연구부터 돌아본다. 학진은 2001년 1월 "기초학문" 육성이란 기치를 내걸고 연구공모를 하였다.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국내외 지역연구) 지원사업이라는 긴 명칭을 가진 사업이었다. 기초학문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역연구가 그 하위분야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대형 규모(연10억 원 이상)에 지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

우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한 세종연구소,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이하 동아시아연구단)을 구성하였다. 동아시아연구단은 39명의 교수급 공동연구원과 21명의 박사급 전임연구원, 도합 60명의 공동연구진으로 구성되었고,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보조원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 거대한 연구단이었다.

연구주제는 10~15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매일 개최하여 무려 일주일만에 "동아시아의 성장, 위기, 통합: 21세기 발전모델의 탐색"이란 거창한 주제로 결정되었다. 이 주제는 다소 진부하게 들린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의 공동연구가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연구비가 13억에 달하며, 연구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전국 제일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역을 아우르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직접 공략해야 한다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연구단은 우리 연구소를 주관기관이 되어 비교이론팀, 중국 정치경제팀, 중국 사회문화팀, 동남아 정치팀, 동남아 정치경제팀 등 6개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세종연구소는 일본 정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연구팀,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는 동남아 사회문화 1개 연구팀,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중국연구센터는 중국 정치 1개팀으로 하여, 모두 10개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주제 선정에 이어 연구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무려 두 달여에 걸쳐 연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실 몇 개를 내 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전성흥, 이한우, 김세걸, 진창수, 이면우, 김도희, 최운도, 김재철 박사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였고, 제출기한 2주전부터는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신청서는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였다. 신청한 뒤 무려 3개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심사과정에는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담심사, 종합심사 등 각종 단계가 있

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통보받는 과정은 실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결국 우리 동아시아연구단은 신청한 대형 프로젝트들 중 최고 점수로 선정되었는데, 확정된 연구비 규모는 2년간 총 25억 9천 2백만 원으로 최대 지원액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연구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어, 우리의 거대한 연구를 총 정리하는 주제였던 "동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이란 주제를 다루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동아시아연구단은 2002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우리 동아연구소는 사상 처음으로 무려 10명에 달하는 유급 전임연구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이한우, 김세걸, 김도희, 전제성, 황인원, 이동윤, 김동엽, 노영순, 김재관, 신은영, 황재호, 장윤미, 이문기 박사 등이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연구하였다. 2년에 걸친 연구는 12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의 형태로 연구성과를 나타내었고, 이 논문들은 다시 16권의 단행본으로 편집, 출판될 예정이다(2006년 2월 현재 이미 13권이 출판되었고, 3권도 한 달 안에 출판될 예정이다).

학진에서 2002년 첫 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형 규모를 인문사회분야에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동아연구소는 2004년 새로운 공동연구를 기획하면서 동남아 지역연구와 중형으로 연구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였다. 연구주제는 1980년대 이후 막 시작된 동남아 각국의 선거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민주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주제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가능하고, 또 이미 서구정치연구를 통해 축적된 선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또 동남아 여러 나라 간에 비교연구가 가능하여, 훌륭한 연구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제목은 "동남아 선거의 제도, 과정, 문화: 경험적 사례연구와 교차국가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낙착되었다. 이 공동연구 역시 주제 선정이 매우 훌륭하여 첫 과제 신청 시에 비해 훨씬 치열해진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선정되었다. 규모를 보면 총 11명(5명의 전임연구인력 포함)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고, 연구비는 총 5억4천9백5십만

원(간접비 제외)에 달하는 액수이다. 연구서 작성에는 이한우, 이동윤 두 박사가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고, 지금까지 위 두 전임연구원 외에도 김동엽, 최난경, 최경희, 김세걸(일본 전공) 박사가 전임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거나 일하고 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쾌거는 바로 『동아연구』가 학진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일이었다. 국내 주요 학회지나 적지 않은 연구소의 학술지가 학진에 등재되어 있어 일견 쉬워 보이는 일이나, 우리 동아연구는 시기를 놓쳐 늦게 신청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이미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논문만 교수 임용이나 승진에서 인정하는 관행들이 전국 대학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은 『동아연구』에 글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동아연구』는 소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동료교수, 선후배, 제자 등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원고를 청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는 『동아연구』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행조차 갈수록 늘어나는 학진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폐간하는 길만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무려 20년의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우리 『동아연구』를 어떻게 내 손으로 폐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동아연구』를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학진에 등재하기 위한 단기 '전략'을 짜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그 책임은 전임연구원 전제성박사(현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상임연구원)에게 맡겼다. 심사에 있어 과거 실적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를 위한 급선무는 당장 응모 원고의 수를 늘이는 일이었다.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금을 동원하는 길뿐이었다. 그 자금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편집과 인쇄 질을 높인 것이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연구소 운영비 전액을 『동아연구』 재창간에 쏟아 부었다. 동아연구소 운영은 학진 공동연구 수행으로 통상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연구발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된 덕분이었다. 원고료로도 논문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때면 동아시아연구단 소

속 전임연구원들에게 『동아연구』에 기고하도록 '독려' 하기도 하였다. 편집위원회를 교내외, 국내외 저명 학자로 재편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도 받아 게재하도록 하여,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결국 2004년 후반기 학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올 9월 등재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동원' 없이 자발적 기고가 매호 20여 편 『동아연구』의 등재는 누구보다도 전제성 박사의 끈질긴 노력과 『동아연구』에 대한 열정 덕분이기에, 이 지면을 빌어 특별히 치하하고 싶다. 전 박사에 이어 최난경 박사가 편집간사를 맡아 1년간 일했는데, 그때는 동아연구소 2, 3대 소장이셨던 이상우, 이태욱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과외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작년부터는 새로운 편집간사로 일하게 된 최경희 박사는 뛰어난 수완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기고를 받아, 갈수록 높아지는 탈락률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동아연구』가 지령 50호를 맞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내 대학 소속 연구소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지역연구 관련 학술지를 발간한 경우는 손꼽을 정도이다. 동아연구소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학술지들 중 학진 등재에 성공한 경우는 고려대 『아세아연구』와 한양대의 『중소연구』뿐이다. 특히 '동아시아' 란 지역으로 특화한 학술지는 『동아연구』가 유일하고 동아연구소란 이름 역시 우리 학교밖에 없어, '동아시아의 세기' 로 떠오르는 21세기를 맞으며 우리 연구소를 설립하신 선배 교수들의 먼 안목과 깊은 통찰력에 감탄할 뿐이다.

그러나 나의 소장 시절을 뒤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첫째는, 우리 연구소도 국내의 대다수 여타 대학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진이나 학교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학교의 지원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나 역시 우리 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째는, 연구소다운 활동을 벌이지 못했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

지 못했다. 연구소라 함은 거의 매주 다양한 형태의 연구모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회의든, 워크숍이든, 월례발표회든, 초청강연회든, 항상 무엇인가가 발표되고 토론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 셋째, 나는 소장을 맡으면서 언젠가 동아연구소가 교육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율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생에게는 특강 시리즈를, 대학원생들에게는 전문가 훈련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싶다는 꿈을 꾸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높은 장벽 앞에 꿈을 접고 말았다. 넷째로, 좋은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었다. 그리하여 동아연구소 홈페이지는 언젠가 동아시아와 관련된 정보, 자료, 교류가 집중되는 포털사이트가 되는 꿈도 꾸어 보았다. 실제로 많은 돈을 동아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단 홈페이지 구축에 투여하였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지원을 보장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대학 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믿는다. 그래야 연구소는 그야말로 연구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면, 넉넉한 공간이라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공간이 있다면, 나는 동아시아 지역을 전공하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훌륭한 박사들을 무급 전임연구원으로나마 동아연구소에 다 모아 놓고 싶었다. 만약 재정적 지원도, 공간 제공도 마땅치 않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돈 안 드는 지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연구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전임연구원에 대한 지위 향상과 연구소의 교육 기능 부여일 것이다.

『동아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지만 한두 가지 더 바람이 있어 그냥 밝힌다. 첫째는, 정말 독자에게 읽히고 애독자가 있는 『동아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적 의미가 강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면한 쟁점을 다루는 기획도 필요할 것이다. 독자들이 보아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와 이를 전

문가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논문을 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연구』가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연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진도 다양한 동아시아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언어도 동아시아의 모든 언어를 허용하여, 진정한 동아시아인의 범지역적, 국제적 학술지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면 지나친 환상일까?

앞으로 동아연구소와 『동아연구』는 후임 소장들과 편집위원장들의 역량과 노력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